

호남석유화학, 배당금 36억원 지급

증권예탁원, 12월 결산법인 중 화학기업 14사 총 916억원 배당 예정

4월21일부터 25일 사이에 S-Oil 등 12월 결산법인 93개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한다.

증권예탁원에 따르면,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S-Oil, 호남석유화학 등 상장법인 23개, 등록법인 70개이며, 총 138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

화학기업으로는 모두 14개 기업이 배당을 실시한다.

S-Oil의 배당금이 총 777억4100만원으로 75%의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였으며, 호남석유화학이 5%의 현금 배당률로 35억7100만원을, 미창석유와 코오롱유화, 화승R&A, 한국셀석유, 동진세미켐 등이 각각 1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한다.

또 코스닥 등록법인인 동진세미켐과 호성케멕스가 각각 14억2400만원, 9억8000만원을, 코스맥스와 한국미생물연구소가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.

12월 결산기업 배당금 지급현황(2003.4.21-4.25)

(단위: 100만원)

배당금 지급일	회사명	시장구분	배당구분	배당금	현금배당률 보통주	현금배당률 우선주	주식배당률 보통주
03-04-21	미창석유	상장	현금	1,392	16%		
	삼영화학	상장	현금	570	6%		
	송원산업	상장	현금	356	10%		
	넥센	상장	현금	993	7%	8%	
	코오롱유화	상장	현금	1,327	20%		
	호남석유화학	상장	현금	3,571	5%		
	코스맥스	코스닥	현금	207	15%		
03-04-22	동일고무벨트	상장	동시	165	3%		8%
	화승R&A	상장	현금	1,422	10%		
03-04-23	한국셀석유	상장	현금	1,200	40%		
	한국미생물연구소	코스닥	현금	259	10%		
03-04-25	동진세미켐	코스닥	현금	1,424	10%		
	S-Oil	상장	현금	77,741	75%	76%	
	호성케멕스	코스닥	현금	980	10%		

한편, 4월18일까지 실질주주에게 지급된 2002년 12월 결산기업 배당금은 총 611개(상장법인 328개, 등록법인 283개) 기업, 5조303억원으로 대부분 25일 안에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23>